

015/200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작품의 주제, 반복, 반복되는 성격제시, 반복되는 주제의식, 중요성 확인!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천변풍경

S1. 이쁜이 엄마 + 이쁜이 : 딸 시집장면
시대적 배경 고려, 출가외인 시절.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엄마	전형 딸 사랑	딸 걱정 피로, 공허	딸이 결혼하는 장면 엄마의 반응 내면심리
딸	아버지 '개화기'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 천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S2. 신전집 몰락. 이사 장면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서술자			서술자 개입. 평가. 특히 [A] 독자는~ 매우 특이
이발소 소년	관찰자		딱 관찰자 수준에서 신전집 관찰
마을 사람	관찰자	일부 공감 슬픔 하지만 이내 잊음.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술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통!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두 작품은

1. 공간적 배경 / 시간적 배경에 따른 전개에서

2. 서술 방식에서 특이점이 존재

즉

1. 오발탄은 철호vs영호 성격차이를 s69~71에서 보여주며,
73~75 장면변화에서 대사로 연결 잡음

2. 천변풍경은 이쁜이 결혼 장면과 어머니의 반응, 내면심리 묘사
와, 신전집 몰락 장면, 일부 특이한 작가 개입, 서술.

따라서, 공통 주제 묻는 21번.

22번 관찰자 역할

23번 특이한 서술자 개입

24번 전체 주제, 사건 갈등 파악

25번 특이한 전개방식. 장면의 연결

26번 특이한 전개방식의 정확한 파악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희곡/시나리오 오발탄

S68. 철호. 배경 산비탈. 철호 두벽 두벽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어려워도 성실 묵묵		산비탈을 묵묵히

S69. 철호. 회상. 6.25. 피난민 수용소. 아내 모습.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아내에 미안함	아내의 좋았던 시절 아내의 힘든 시절 모든 것이 자신 때문
아내	유복 철호에 시집와서 가난		아내의 학창 시절 아내의 피난 시절

S70. 철호. 배경 산비탈. 시가지와 거리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인물	성격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어려워도 성실 묵묵 하지만 주류가 될 수 없음	시가지를 바라 보기만 거리감

vs 영호와 철호의 성격 차이

S71. 영호. 배경 산비탈 길. 운전기사가 운전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인물	성격	사건 갈등 장면
영호	어려움 남에게 자신은 편한길	운전 조차 안 함

S72. 영호가 철호의 집으로. 갈등 암시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성실 도덕	영호 부정	철호 기준 도덕으로 영호를 나무람 영호는 철호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는 거지꼴 못면함
영호	기회주의 성공만	철호 인정 자기 합리	

역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5. 철호 집 밖 공간. 명숙이. 영호 철호 그대로 싸움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통주제.

문제는?

(가) : 갈등 없음. 어머니의 내면심리 위주 묘사

(나) : 형제간 갈등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가) : 갈등 없음

(나) : 형제간 갈등만 가능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웃음 유발 없음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사건 해결 없음

갈등양상만. 회상으로 성격제시만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갈등을 보여주나 그것은

(나) : 형제간 갈등만 가능

다각적이지 않음.

cf 다각적 : 다양한 관점, 예를들면 여러 인물이 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 서술. 교장은 친일파 편, 마을 사람 재중숙씨는 독립운동가 편(2007-9평)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내면심리!

22. (가)의 이팔조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관찰자 역할. 1번선지 끝

정답. 인물의 성격.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서술 방식

발췌독 권장아요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 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 인물의 성격. 공간의 특징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갈등 잉? (가)에는 갈등 없는데!

정답!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껴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숨겨진 주제. 의도.

형제간의 성격 차이. 갈등 암시.

영호 - 대범, 범죠포도 거리낌 없음

철호 - 성실. 도덕 5번 선지 정답!

우리의 시간, 판단력, 모든 부분에서 힘들게 만든 26번입니다.

출제 의도와 설계 파악이 안 되면 어마 어마한 시간을 소요하며, 결국 오답으로 이끌죠.

뻔한 보기 서술.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㉑~㉔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의도는? 설계는?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천변풍경

S1. 이쁜이 엄마 + 이쁜이 : 딸 시집장면
시대적 배경 고려. 출가외인 시절.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㉑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㉒ **천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S2. 신전집 몰락. 이사 장면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㉓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술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통!**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희곡/시나리오 오발탄

S68. 철호. 배경 산비탈. 철호 두벅 두벅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S69. 철호. 회상. 6.25. 피난민 수용소. 아내 모습.

S70. 철호. 배경 산비탈. 시가지와 거리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vs 영호와 철호의 성격 차이**

S71. 영호. 배경 산비탈 길. 운전기사가 운전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공간 배경과 인물 반응으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

S72. 영호가 철호의 집으로. 갈등 암시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인물	성격	내면	사건 갈등 장면
철호	성실 도덕	영호 부정	철호 기준 도덕으로 영호를 나무람 영호는 철호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는 거지꼴 못면함
영호	기회주의 성공만	철호 인정 자기 합리	

역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5. 철호 집 밖 공간. 명숙이. 영호 철호 그대로 싸움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S72. 영호가 철호의 집으로, 갈등 암시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 주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술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통!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억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 주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서술자)에 의한 인물들의 감정 서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S73~75. 영호 vs 철호.

특이한 서술/전개방식 : 다른 장면이 서로의 대사로 연결

동시에, 서로의 성격 제시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억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 엄마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 자세히 묘사

㉡ 주변풍경 : 같은 장면

강건너 다른공간, 바로 이날 같은시간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S73. 철호 집 부엌 공간 : 민호, 영호 철호는 대사로

취직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S74. 철호 집 방 안 공간

억설 대사로 장면 넘어감. 연결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 하루 있었던 장면 묘사를 이렇게 길게 하고나서

여기는 신전집, 술집, 하숙옥 간판, 변화를 한 줄로 통!

같은 공간 매우 다른 시간

#75와 유사하지만,

S75는 같은 시간대! 전혀 다름! 정답!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전개방식의 특이한 부분이

주제 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을 못 잡으면 쉽지 않게 출제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삶의 총체적 이해 + 내 삶의 고양

(가) 결혼식 상황 인물 내면심리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물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뿐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내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내면심리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뿐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뿐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듯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흠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령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

[A]

작가 개입

작가 개입 특이한 서술방식

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내면심리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유하게도 그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 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깃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관찰자

같은 공간+시간 변화

-박태원, 「천변풍경」-

(나)

#68.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상황, 성격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산비탈

철호와 대비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문힌 거리.

#71.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시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72.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킁킁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매를 끌르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뽀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머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단 말이다.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왔던 텍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소재,법,규칙,윤리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오?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O·L(overlap):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하고 있다. 주제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주제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가)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

매개

철호와 영호 암시

대화 매개

인물:관찰자

22. (가)의 이말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서사,즐거리,장면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독서 정보군집 필요시 발췌독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제,정보가치 높음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면심리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장면 배경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뎌움을 보여 주고 있다. 내면심리,성격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상황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성격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인물
-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심리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장면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성격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성격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면 시간,공간,매개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결혼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영호**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엄마 내면심리

작가개입